

산자부, 장성 싱크홀 민원 부실 대응

지하에서 석회석 채굴이 이뤄지고 있는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건동광산 인근 농경지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싱크홀) 발생 민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실 대응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경지 싱크홀은 건동광산 2경도(2번)로부터 직선(수평)거리 104m, 수직(지하경도)에서 지상까지 높이) 80m, 고수절과는 1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

27일 장성군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6월8일 고려시멘트 소유 석회석 채굴용 건동광산 인근에 거주하는 황룡면 와룡리 반곡마을 주민들이 채굴로 인한 농경지 싱크홀을 주장하며 장성군에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주민들은 모내기 한 장 진행 중인 농번기철에 눈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함에 따라 농작업 도중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호소했다.

또 싱크홀이 발생한 농경지는 고수절과 직선거리로 100여m 떨어진 곳여서 고수절 안전을 우려해 이 일대 지반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포함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장성군은 해당 민원을 전남 지역 광산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산자부 산하 남부광산안전사무소로 이관시켰다.

당시 민원이 제기된 대형 싱크홀은 모심기가 막 끝난 개인 사유지는 1필지와 고려시멘트 최대주주인 A씨 소유의 농경지 1필지 중간 지점에서 발견됐다.

장성군으로부터 민원을 이관 받은 남부광산안전사무소는 담당자를 지난 6월22일과 8월3일 각각 한 차례씩 싱크홀이 발생한 현장으로 보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장 조사는 고려시멘트 측이 주말인 6월10~11일경 싱크홀이 발생한 농경지에 레미콘과 펌프 카를 동원해 물타르(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물질)를 강제 주입해 빈 공간을 메우고 흙을 채워 넣은 이후에 이뤄졌다.

당시 현장 조사에 나선 남부광산 안전사무소 측은 싱크홀이 복구된 농경지를 눈으로만 확인하는 '육안 조사'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안조사 외에는 싱크홀의 크기와 깊이, 고려시멘트 측이 주입한 물타르 양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주민 B씨는 "현장조사가 형식에 그쳤다. 싱크홀 발생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남부광산안전사무소는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여 민원 지난

싱크홀 복구된 후 수박 겉핥기식 '육안 조사' 실시 구체적 내용·자료 無...한 장짜리 조사 결과 언급

9월19일 장성군에 '민원처리 협조요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한 장짜리 공문으로 회신했다.

공문에는 '장성 석회석 광산 주변 농지에서 발생한 싱크홀 발생 민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두 차례 실시

한 결과, 광산개발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짧은 조사 결과만 언급돼 있었다.

현장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조사 자료도 첨부되지 않은 달랑 공문 한

장으로 이뤄진 답변이 민원 회신에 대한 전부였다.

남부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는 "싱크홀이 발생한 후 고려시멘트 측에서 현장 복구를 마쳐 지반침하 확인이 불가능 해 육안조사 밖에 할 수 없었다"며 해당 농경지는 광산 안전법상 광산과 직접관련 있는 부지가 아니라서 특별히 조사를 취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빈의자에 놓인 약속과다짐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빈 의자에 새긴 약속' 퍼포먼스를 위해 마련된 300개의 의자가 놓여 있다. 이 퍼포먼스는 올 한해 돌아가신 여덟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할머니들의 빈자리를 채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하기 위해 진행했다.

순천고교 축구부 감독 채용 동문회와 '파열음'

순천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채용을 두고 순천고 총동문회와 학교측 간의 파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순천고에 따르면 지난 18일 축구부 신입 지도자를 선임 공표했다. 학교 측은 이에 앞선 지난 13일 감독 지원자에 대한 서류접수를 받아, 서류합격자 발표와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

이렇게 서류심사와 면접 과정에 학교 동문(동창)회와 신경전에 갈 듯이 최고조까지 치닫고 감정이 날뛰는 등 불화함을 연출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지난 9월에 취임한 박모 교장이 전임 최고교장(퇴임)이 추진 중이던 감독 선정 기획안을 무시하고 학교(교장)측 독자적으로 감독 채용관련 규정을 만들어 공고하면서 동문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순천고 총동문회 관계자에 따르면 1.모 전임 감독이 14년이 넘게 근무하면서 축구부 실적이 저조하고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전임 교장이 이렇게 저조한 축구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축구부 감독 교체와 함께 그 교체 대상을 총동문회와 협의하기로 했지만, 신입 교장이 이

러한 혐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총동문회 J모씨는 "최모 전 교장이 축구부 활성화를 위해 총동창회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감독 또한 지역(전남)출신의 프로축구 선수출신 또는 유명한 선수출신 등을 추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고 동문회에서 많은 검토 끝에 학교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학교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축구부 후원 계획을 통해 후원회까지 선임할 준비를 마치고 인재 감독 추천에 대한 다양한 여론수렴과중에 교장이 퇴임하고 신입 교장이 취임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입장"을 말했다.

김진호 순천고 총동문회 회장은 "모교 축구부 활성화를 위해 동문회에서 적극 동참할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신입 교장이 선임 감독을 채용하면서 동창회의 의견을 받아드리지 않고 일방통행만 하고 있어, 모든 후원 계획을 잠정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지역(전남)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인맥과 축구 실력을 쌓아온 감독을 선임해

야 순천시민과 동문회에서 많은 관심과 후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선수 지원자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도 감독과 동문회가 협심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교측이 동문회를 배제시키고 독자적으로 감독을 선임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교장은 "전임 교장과 동문회간의 감독 선임 관련 협의 내용을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빠른 시일내 김 회장 등 동문회 관계자와 만나 갈등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민 윤모씨는 "순천고는 오랜 전통을 가진 축구부다. 창단부터 성적이 부진해 축구인의 한사람으로 이제는 학교를 잘 아는 감독이 선임될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빼격 거리고 있다"면서 "학교측이 학교민의 축구부가 아니라 동문회와 순천시민에게 사랑 받는 축구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순천고는 감독으로 선임된 B모 감독에 대해 소정 절차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할 자격 여부를 판단해 세해부터 감독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70대 할머니 매단채 주행한 버스가사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70대 노인을 매단 채 버스를 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A(5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37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시내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타려던 B(75·여)씨를 매달고 차를 몰아 부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해당 정류장에서 승객중 세번째로 탑승하려던 B씨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은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손이 긴 채로 20여m를 끌려가다 버스 뒷바퀴에 치여 큰 부상을 입고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맞은편 정류장에 자신과 같은 노선의 버스를 몰던 기사와 인사를 하다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임형택 기자

함께 술 마시던 지인 살해 40대 여성 검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20분께 화성시 능동의 원룸 자택에서 B(46·여)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동거남(39)과 B씨의 동거남(39)까지 모두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동거남과 다툼을 벌이자 이를 말리던 A씨가 화끈하게 반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집에는 정수기 코디네이터가 점검차 방문 중이었다.

A씨는 정수기 코디네이터에 119 신고를 요청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며, 현장에 있던 동거남들도 "B씨가 깨진 유리로 자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의 상흔과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근거로 추궁하자 동거남들은 A씨의 범행 사실을 털어냈다.

A씨와 B씨의 관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B씨의 동거남과 A씨는 오랜 지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용품 싸게 줄게' 사기 혐의 40대 달미

허허벌판에 사무실의 주소를 해놓고 싼값에 소방용품을 납품하겠다고 수억 원을 가로챈 A(47)씨가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광역수사대는 유령 소방용품 납품업체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 후 경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세종시소방본부에서 입찰 공고한 소방용품 공급 낙찰 업체를 찾아가 "싼값에 소방용품을 공급하겠다"고 속이는 등 두 차례에 걸쳐 2억 5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한다는 사무실의 주소는 허허벌판이었으며, 창고를 임대해 안전모 등 샘플 몇 개만 갖춘 유령 업체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 사이트(나라장터)를 보고 낙찰자를 확인한 뒤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내연녀 감금 폭행 50대 스마트 워치 호출 검거

인천 삼산경찰서는 28일 내연녀로 지내던 여성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차방에 감금하고 폭행한 A(53)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 B(40·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량에 감금하고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내연관계를 6년 동안 유지하던 B씨가 최근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헤어지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삼습적으로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이 같은 범행이 이어지자 최근 경기도의 한 경찰서를 찾아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손목에 스마트 워치를 착용했다. B씨는 이날 A씨가 자신을 승용차량에 감금하자 스마트 워치를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인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